

질풍노도의 시대



정재룡

『학력 사항』

- 서울대학교 법학박사(경제법)
- 명지대학교 명예 경영학 박사
- 미국 위스콘신대 대학원(M.A 공공정책학)
- 서울대학교 대학원(법학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경기고등학교 졸업

『경력 사항』

- 현) 금융소비자뉴스 회장
- 상명대학교 법학과 석좌교수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사장
- 재정경제부 차관보
-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
- 통계청장, 국립세무대학장
- 경제기획원 물가정책국장, 예산총괄심의관, 부총리 대변인
- 코펜하겐 경제협력관, 물가총괄과장, 자금 계획과장 등

I . Arbeiten, Trinken und Lieben

M뎨으로부터 합격의 소식을 듣고 한 걸음으로 中央廳으로 내 달았다.

내 눈으로 확인하고 나니 긴장이 풀리면서 일순 모든 의사와 감정이 정지되고 마음이 깊숙이 가라앉는다.

이것을 위해 대학 졸업 후 지금까지 고심하던 일을 생각하니 어이없는 헛웃음만이 나를 휘감았다.

대학을 입학하고 나서 가정형편이 기울어졌으므로 남들과 마찬가지로 나도 Arbeit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여기다가 대학에 들어오자 선배들이 배워준 것이 사이비 「대학의 낭만」이었다. 대학생들의 반은 이른바 Trinken으로 지새우고 나머지를 공부 좀 하면 考試합격은 저절로 되는 것인 줄 알았다. 여기서부터 대학생들이 잘못되기 시작하였다. Arbeit하라 술 마시라 가끔가다 데이트 하라 솔직히 이야기해서 공부할 시간이 없었다.

2학년이 되자 나도 法大生인지라 도서관 한 구석에 나의 고정석을 정해 놓고 매일 가방으로 하여금 내 자리를 지키게 하고 나는 惡童 몇과 어울려 놀러 다니는

라 나의 伴侶이어야 할 사랑하는 가방을 도서관에서 홀로 자게도 만들곤 하였다.

이렇게 친구들 뺏아서 作黨을 하여 틈틈이 놀다 보니 강의시간에 들어가는 것마저 아까워 도서관에서 굳게 결심하고 法書를 뒤적거리겠다고 앉아 있으면 줄의 몇몇이 또 모이게 되어 아예 학교에 공부하러 나오는지 놀러 나오는지 알 수 없는 생활의 연속이었다. 아무튼 2, 3학년 때는 열심히 놀기 위해 학교에 나왔던 것 같다.

4학년 5월, 드디어 우리 7, 8名の 대학생활의 苦樂을 같이 했던 벗들이 모든 방종한 지금까지의 생활을 청산하고 올바른 法大生이 되기 위해 마지막으로 大川에 가서 마음을 정리하기로 하였다(물론 이 때도 학교 강의시간을 빼 먹고서).

이것이 계기가 되어 그 다음부터는 作黨해서 놀더라도 항상 마음 한 구석에는 善을 향한 마음이 도사리고 앉아 견제역할을 해 주었다.

이러다 보니 어느덧 여름방학이 닥쳐오고 人生을 등지겠다는 생각이 아니면 무엇인가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이 여름방학이 내 人生의 轉機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

H嬢의 격려를 받으며 무더위도 아랑곳없이 법대 도서관에 꼬박 쳐박혀 外務職 시험준비를 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래도 그동안 틈틈이 하였던 영어나 독일어에는 시간을 절약할 수가 있어 논문과목에 전념할 수가 있어 다행이었다.

그러나 그동안 정신적인 안정을 가져다 준 H嬢과의 관계가 원만치 못하여짐에 따라 시험을 목전에 두고 臨戰의 태세가 흐트러지게 되었다.

H嬢과의 관계도 정리할 겸 마음의 자세를 가다듬기 위하여 졸업을 얼마 앞둔 겨울 어느 날, 삼척에 있는 淸源寺로 향했다. 모든 것을 훌훌 털어 버리고….

II. 방향 설정

대학 입학시부터 사법시험에 대한 생각은 별로 없었고, 外交官이 될 생각을 갖고 法大를 지망하였던 것이나 입학하고 보니 外務職 시험이 없었으므로 한동안 방향 설정을 못하여 갈팡질팡 하였던 것이다.

이것이 연유가 되어서인지 체계적인 공부를 하지 못하고 남들이 하는 대로 막연히 司試를 하겠다는 생각으로 法律 공부를 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한 애매한 자세로는 결국 4학년이 될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되었던 것이다.

졸업을 1년 앞둔 4학년 3월 초인가, 外務職 시험이 다시 부활되고 M兄의 권유가 外交官에 대한 나의 집념을 굳게 하였다.

이때부터 그동안 조금씩 보아 오던 法律書는 미련을 간직한 채 책상 한 귀퉁이에서 빛을 잃게 되었다.

外務職으로 방향을 결정하고 나니 마음은 안정을 찾게 되었고 晩時之歎의 느낌은 있지만, 백지인 상태에서 최선을 다하기로 하였다.

이때부터 지금까지 3년간 나의 수험생활이 시작되었던 것이다.

지금 돌이켜 보면 좀 더 일찍이 방향 설정을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늦은대로 매우 다행한 일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Ⅲ. 外務職에의 실패

4학년 초부터 시작한 外務職 시험준비는 졸업 후 5월까지 거의 1년이라는 기간을 그래도 성실히 하여서 그런지 어느 정도 자신을 가질 수가 있었다.

1차시험을 끝내고 2차시험까지 한 달 동안 내 나름대로 총정리를 대충 할 수 있었고 무난히 2차시험을 치를 수가 있었다.

불안한 대로 웬만큼 기대를 걸었지만 결과는 낙방의 쓴 고배를 마시게 되었다.

대학 입학 후 처음 치는 시험이었고, 웬만큼 기대를 갖고 있어서 그랬는지 의외로 충격이 컸었다.

마침 그때 三級行政職 시험이 석 달인가 앞에 있었기 때문에 친구들의 권고도 있고 하여 무리라고 생각하면서도 응시하기로 마음을 먹고 Y兄과 奉國寺에 들어갔다.

과목을 더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었지만 奉國寺 2개월간 열심히 하고 응시하였으나, 첫날 行政法에서 완전히 잡치고 나니 나머지 과목은 별 의욕 없이 참가하는 것으로 만족할 수 밖에 없었다.

결과는 예상대로였다.

이때부터 나도 남의 일같이 보아오던 만년 수험생의 대열에 끼여 불안하고 쫓기는 灰色의 생활을 하게 되었다.

行政職에 실패하고 난 후 外務職이 다시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준비를 시작하였다.

한번 경험도 있고 하여 비교적 치밀한 계획하에 필승을 다짐하며 공부할 수 있었다.

Y兄이 外務職 성적을 알려 주었다.

평균 59.4점이고 독일어와 외교사가 나란히

53점이고 나머지는 60점을 넘었고, 특히 가장 염려하던 경제학이 66.3점이었다.

이에 자신을 얻어 학원을 쫓아다니며 독일어를 보충하여 약 3개월간 총정리를 하고 그 이듬해 外務職에 응시하였다.

이번에는 되겠지 하며 대학원에 들어가기로 마음을 먹고 입학시험까지 치렀는데 며칠 후의 外務職의 합격자 명단에는 나의 이름은 없었다.

부모님과 친구들 볼 날이 없었다. 패인을 가만히 분석해 보니 行政職을 응시한 것이 잘못이었고 이에 따라 外務職의 요체인 영어와 독일어의 실력을 충분히 기를 수 없었던 것이라고 판단되었다.

성적을 알아보니 평균 59.2점, 자신을 가졌던 경제학이 의외로 나빴고 거기에서 처음과 마찬가지로 독일어와 외교사가 좋지 않았다. 이렇게 되니 속 편하게 外交官은 나와는 인연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시험을 끝으로 外務職에는 안녕을 고해버렸다.

Ⅳ. 고난의 해

대학원에 적을 두고 집의 눈치를 보면서 浪人 생활을 하자니 가장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 고교동창과 나에게 기대를 걸었던 친척들이었다.

공부를 해도 별로 의욕도 생기지 않고 팔자 타령만 하게 되었다. 그나마 같이 수험생활을 하는 친구들을 만나서 소주 한 잔 기울이며 로맨틱(?)하기만 했던 대학생활을 회상하고 呵呵大笑하는 것이 유일한 기쁨이었다.

그동안 잠잠하게만 있던 군대에 대한 문제

가 나를 괴롭히기 시작했다. 그러나 다행인지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는 뜻인지 입영영장이 연말로 나와 있었다.

이력저력 공부를 하는 사이에 가을에 三級 行政職 시험을 응시하게 되었다.

이때는 비교적 오랜 기간을 준비할 수 있었기 때문에 마음은 내일에 부풀어 있었다. 여유 있게 시험을 치고 C兄과 여행을 떠났다. 경솔하게도 이번에는 틀림없겠지 하는 믿음이 있었다. 1주일 동안 기분을 내고 돌아와 발표를 보니 7인의 합격자 명단에는 내가 아는 사람이라고는 나 자신을 포함해서 한 사람도 보이지 않았다. 꿈꾸는 것 같을 정도로 완전히 망상에 빠져 있었다.

中央廳 계시관은 나에게는 통곡의 벽이 될 수밖에 없었던 모양이다.

행정학이 남들에 뒤질세라 과락이었다. 발표가 나던 다음날 새벽에 家親께서 자동차 사고로 입원하게 되었다.

철들고 처음으로 뜨거운 눈물을 흘려보았다. 게다가 1개월 앞으로 영장은 나와 있었다.

생활에 대한 부담과 암담할 내 人生을 그려볼 수가 있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자포자기가 되어 입영할 생각이었다.

그리고 3년 뒤에 평범하나 행복할(?) 소시민의 생활을 그려 보았다.

이렇게 걱정하고 나니 마음은 오히려 담담해지고 자신을 합리화 시키려 들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N兄의 간곡한 조언과 집안에 대한 책임감 등이 일단 영장을 연기시켜 놓고 직장을 갖기로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고 다시 한번 기회를 갖기를.... H화약에 취직을 하였으

나 출근 며칠 전에 대학원에서 지도교수님이신 L교수님의 추천으로 P연구소로 적을 옮기게 되었다.

연구소인지라 비교적 자유스러웠고 국제법을 맡고 있었으므로 시험준비에 어느 정도 다른 직장보다는 도움이 되었다. 틈틈이 퇴근 후 책을 잡았지만 뜻대로 잘 되지는 않았다. 그저 운에 맡기고 그동안 해 놓은 공부나 잊지 않도록 조금씩 정리하는 정도였다.

V. 운명의 女神이 미소짓다

마침 연구소에서 내가 맡은 일이 국제법이라 대학원을 병행시켜 나가는데 도움이 되었고, 직장을 갖고 있으니 마음은 상당히 안정을 찾을 수가 있었다.

군대는 대학원에 재학 중이었으므로 졸업시까지 연기될 수 있었고, 따라서 조금씩이나마 공부를 하면 되었던 것이다.

겨우 작년까지 해 놓은 것을 대충 훑어보고 응시하게 되었다.

세 과목을 새로 해야 했지만 그렇게 큰 부담은 되지 않았다.

과락만 면하면 웬만큼 자신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았다.

1주일에 걸쳐 평범한 대로 시험을 치루고 나니 기분은 홀가분하였다.

작년까지 해 놓은 것이 비교적 정리가 잘 되어 있었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았다.

참고로 이번에 내가 택했던 과목과 기본서를 밝혀보면 다음과 같다.

憲法은 한국헌법(문흥주)을 기본서로 하고 문제집은(박일경)으로 보충하면서, 주로 전체적인 체계와 기본정신에 관심을 갖고 보았다.

行政法은 行政法學(김도창)으로 뼈대를 세우고 문제집으로 정리를 하였는데 웬만한 내용은 암기하였다.

行政學은 학교에서 강의를 충실히 듣지 못하였기 때문에 가장 애를 먹었다.

行政學原論(김규정 저와 박문옥 저) 두 권으로 윤곽을 파악하고 行政學大意(박문옥)로 정리하면서 잡지에 실린 논문으로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다.

經濟學은 經濟原論(김윤환)을 주된 기본서로 하고, 貨幣金融論(이승운), 國際經濟(이상구), 韓國經濟論(이만기) 등을 정독하였다. 國際經濟는 外務職 시험에서 선택과목으로 비교적 정리가 웬만큼 돼 있었기 때문에 이번 시험의 경우 도움이 많이 되었다.

法大 출신들에게는 시사적인 문제에 대비를 위해서나 Economic mind를 갖도록 경제신문을 가끔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財政學은 배복석 교수의 저서와 김명윤 저 財政學 두 권으로 상호보완하면서 보았는데 經濟學 실력이 웬만큼 있으면 별로 힘들 것 같지 않을 것 같다.

나는 선택과목으로 國際法과 社會政策을 하였는데 國際法은 대학원에서 전공과목이라 그런지 제일 무난한 과목이었다. 國際法學(이한기)을 기본서로 하였으며 최재훈과 정장은 공저 國際法學이 최근의 자료를 싣고 있어 보충하였다.

社會政策은 백창석 교수 것을 보았고 시사성 있는 것은 신문과 잡지를 보고 보충하였다. 대체로 기본서의 내용은 비슷하므로 자기의 취향에 따라 선택하여 계속 보는 것이 좋은 것 같다.

나는 주로 기본서로 체계를 세우고 부족한 부분이나 정리하기 곤란한 것은 sub-note를 작성함으로써 시간을 절약할 수 있었다. 그리고 완전히 이해가 되면 암기하여 답안에 그대로 옮겨 놓도록 하였다. 이렇게 공부는 했지만 아직도 확신 비슷하게 갖고 있는 생각은 처음 치는 시험에서 제일 자기의 실력이 최대한으로 발휘한다는 점이다. 다른 사람은 어떤지 모르나 나의 경우는 그랬었던 것 같다.

VI. 맺음

합격의 소식을 듣고 이제는 시험 때문에 생겼고 그 동안 나를 어지간히도 우울하게 하였던 complex가 해소됐다는 것이 다행스럽기만 하다.

法大生은 시험을 치지 않으면 모를까 일단 시험에 발을 들여 놓으면 합격할 때까지는 이 complex가 항상 마음 한 구석에 도사리고 있는 것 같다.

三級試驗이나 司法試驗은 단지 직업을 택하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으므로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면, 자기생활을 위하여 젊었을 때 성실할 수 있다는 것 이상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동안 어려운 살림에도 수험준비를 하는데 모든 것을 희생하신 부모님, 그리고 누님, 동생에게 감사드리며 무더위에도 수험준비에 몰두하고 있는 法大 친구, 그리고 C兄, L兄 등 벗들께 그 동안 격려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수험준비를 하고 있는 여러분께 좋은 성과가 곧 있기를 빌며 두서없는 글을 이만 줄인다.